

“국가 R&D 예산 1/4, 기초연구에 투자할 것”

글_이혜미 사이언스타임즈 인턴기자 wind-bell7@hanmail.net

지난 7월 27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기초연구발전 대토론회’에서 김영식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을 공개하며 “정부 R&D 예산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2008년까지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기초연구예산 중 개인연구 지원사업의 비중을 60%로 늘리고, 이공계 교수의 연구비 수혜율을 1/3, 신진연구자 연구비 수혜율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정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 추진

‘기초연구발전 대토론회’는 최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우리 나라 기초연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선진국 아카데미 소속 재외 한인 과학자와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를 비롯한 국내 과학기술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창조적인 혁신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오 명 과학기술부 장관

커졌다”며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고, 기초연구는 과학기술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력의 척도인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범국가적인 기초연구 투자 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기초연구 활성화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도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성으로 기초학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만큼 교육부는 과기부와 함께 기초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은 올지난 3월 과기부와 교육부를 주

축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4년간 정부가 실시한 기초연구사업을 분석한 것으로, 기초연구투자방향을 제시하고 투자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 계획(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지만, 기초연구자들의 연구비로 직접 활용되는 ‘연구지원 사업’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의 기초연구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연구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비중은 2001년 43.9%, 지난해는 34.5%로 9%가량 감소했다.

박기영 보좌관은 “2008년까지 기초연구예산 중 ‘연구지원 사업’의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기초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구 예산배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서 운영중인 기초과학전문위원회를 10월 중 ‘기초연구진흥전문위원회’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D 중 대학 투자 비중 30%로 확대

우리 나라 기초연구 투자규모는 1999년 5천370억 원에서 올해는 1조4천460억 원으로 6년간 약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R&D 예산 중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24.4%, 영국 32.2%보다 낮은 20.3%다.

특히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총연구개발비 중 대학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16.8%, 영국 22.6%, 일본 13.9%인 반면 우리나라는 10.1%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학 연구비 중 기초연구의 비중은 미국 65%의 절반 정도인 33.5% 수준이다.

김영식 과기부 기초연구국장은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까지 정부 R&D 중 대학투자 비중을 30%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영재 육성을 위해서는 초·중·고·대학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과학영재교육원(초), 과학영재학교(중), 과학고등학교 및 국제과학올림피아드(고),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대학)을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안)

에 따르면 ‘기초연구의 체질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기초연구지원의 체계화,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 기초연구를 위한 생산적 연구기반 확충,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활성화 등 4개 부문 15개 과제가 선정,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구발전 단계별(탐색·심화·고도화 단계)로 차별화된 지원 모델을 구축, 과기부가 심화·고도화단계의 개인·소규모 연구를 지원하고 교육부는 탐색단계의 개인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권역·지역별로 연구에 필요한 대형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기관을 육성하며, 기초연구 특성을 반영한 평가 제도를 마련해 3~5년 주기로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호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 김성완 미 유타대 석좌교수, 서남표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 한국남 미 사우스 다코타 스쿨 교수, 최원규 미 머크연구소 수석부사장, 강철용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 교수 등 선진국 아카데미 소

속 재외 한인 석학들은 한국의 기초연구 체질강화를 위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스웨덴 과학기술 한림원 소속으로 미국 과학재단 부이사장을 지낸 서남표 MIT대 석좌교수는 “현재 대학의 연구는 대부분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가르치고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종분 야간 융합을 통해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낼 것을 주



서남표 교수

문했다. 덧붙여 “정부는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늘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 공학한림원 회원인 한국남 사우스 다코타



강철용 교수

스쿨 교수도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세기에는 대학연구가 산업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학생들에게 과학적 연구가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당부한 그는 해결책으로 미국 실험실에서 대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도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기초연구 투자방향과 각종 사업 지원방식에 다양한 형태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